

〈일반논문〉

## 근대 금강산 권역의 사찰 현황과 불교사적 의미\*

김 성 연 \*\*

〈목차〉

- I. 머리말
- II. 19세기 말 금강산의 사찰 추이
- III. 일제강점기 금강산의 사찰 현황
- IV. 근대 금강산 권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금강산 사찰들의 수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람록과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조선 후기의 관찬지리지에는 대략 30개소 정도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양반 사대부들의 유람록을 보면, 100개 이상의 사암(寺庵)이 금강산에 존재했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정한 규모와 전통성을 지니고 유지·관리되었던 사암과 단지 수행을 위한 기도처 정도의 암자들로 시기에 따라 존폐를 거듭했던 정황들이 합쳐져 각기 찬술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 까닭이다.

근대 금강산 사찰의 현황은 19세기 말과 일제강점기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

\* 이 글은 2022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개최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 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보았다. 19세기 말은 두 편의 금강산 유람록을 바탕으로 했는데, 두 기록에서도 금강산의 사찰은 대략 30개소 정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사암들의 존재 정황과 승려에 대한 인식 등이 서술되어 있어 금강산 불교의 변화상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금강산 사찰들의 본산인 유점사가 발행한 자료들과 교단 중앙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보이는 사찰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에서는 대략 35~39개 정도의 사찰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역사성, 전통성을 간직한 금강산의 사찰들은 일제강점기에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근대성의 표상이자 민족 정체성을 지닌 곳으로 변화하였다. 일제의 간섭과 통치 속에서 민족적 자립과 자각을 요구하는 민족성 고취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오늘날에는 통일의 물고름 틀 중요한 매개 역할이 되기도 한다. 이미 금강산 관광이 시도되면서 남과 북의 협력으로 신계사가 복원되기도 했다. 남과 북의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사찰에 불교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금강록, 봉래일기, 사법, 유점사, 본말사지

---

## I. 머리말

금강산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화엄경』 「보살주처품」에서 설해진 해중(海中) 금강산에 법기보살(法起菩薩)이 상주하고 있다는 믿음이 일찍이 신앙되었고, 그러한 불교 정

신이 깊이 스며있는 불교 성지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금강산에는 봉우리마다 비로봉, 법기봉, 관음봉처럼 불교식 이름들이 지어졌고, 골짜기마다 수많은 사찰들이 자리를 잡고 불교문화를 꽃피웠다.<sup>1)</sup> 심지어 승유역불의 조선시대에도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건봉사, 신계사, 화암사 등이 왕실 원당(願堂)으로 지정되었고,<sup>2)</sup> 무엇보다 양반 사족들의 금강산 유람기(遊覽記)에도 수많은 사찰들이 등장하는 등 금강산의 사찰들은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을 계승해 왔다.

그리고 근대에는 ‘관광’이라는 이름하에 금강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전통 사찰들은 수행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으로 대폭 확대된 관광객 맞이와 함께 불교의 대중화와 종교성 함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야 했다. 근대 금강산으로의 관광은 식민지 개발과 제국주의의 위상을 홍보하는 정책선상에서 이루어진 면이 크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 축조 등에 승려들이 동원되면서 규모가 작은 사암(寺庵)들이 폐사되는 등<sup>3)</sup> 전반적인 사세 퇴락의 추세 속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는 테마의 등장은 불교도에게도 분명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설을 지니기도 한다.

현재 금강산 사찰에 대한 연구는 근대 이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와 양반 사대부들의 금강산 유람기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반면 19세기 후반, 즉 근대 금강산 불교의 실태

1) 김탁, 「금강산의 유래와 그 종교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1, 동양고전학회, 1993, 242쪽.

2) 탁효정,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사회적 기능」, 『칭계사학』 19, 칭계사학회, 2004, 160쪽.

3) 이종수, 「16-17세기 유학자의 유람록으로 본 금강산 불교」, 『남명학연구』 51, 경남문화연구원, 2016, 234~241쪽 참고.

4) 박진영, 「15-17세기 금강산유람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윤정, 「조선후기 금강산의 불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고영섭, 「금강산의 불교신앙과 수행전통」, 『보조사상』 34, 보조사상연구원, 2010; 이상균, 「조선시대 관동유람의 유형 배경」, 『인문과학연구』 3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이종

나 사찰 현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sup>5)</sup> 다만 식민지 금강산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편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오늘날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고 공동으로 신계사 대응전이 복원되는 이 시점에서,<sup>6)</sup> 조선시대의 사찰 현황으로부터 오늘날에 연결해주는 근대 시기의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근대 금강산 사찰들의 존폐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근대의 범위는 편의상 개화기로부터 해방 이전까지로 설정하였다. 지역은 ‘금강산 권역’으로서 흔히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구분하는 오늘날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 일대를 지칭하고자 한다. 오늘날 북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금강군과 고성군에 해당하며, 1952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회양군, 통천군, 고성군, 인제군의 4개 군에 걸쳐 있었다.<sup>7)</sup> 그리고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상으로는 회양군과 고성군이 이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회양군과 고성군으로 나누어 각기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에 있는 사찰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경우 일제강점

---

수, 앞의 논문, 2016 등 다수.

- 5) 홍성익, 『『유점사본말사지』에 대한 연구-「청평사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명단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70, 불교학연구회, 2022; 이경순, 「1932년 통도사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금강산관상록』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37, 대각사상연구원, 2022 등.
- 6) 1998년 남한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합의를 한 후, 2000년대 초반 금강산 관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북 불교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신계사의 대응전을 비롯한 일부 전각을 복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북한군에 의해 남측 관광객이 총격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사)남북경제협력포럼 엮음, 『금강산, 평화를 마중하다』, 세창미디어, 2018을 참고).
- 7) 『북강원도사 1. 금강산권역 I』, 강원도 문화유산과(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19쪽, 64쪽 지도 참고. 본 논문의 주제에 있는 ‘금강산 권역’이라는 범주는 강원도 문화유산과에서 발행한 바로 이 책을 참고하였다.

기에 시행된 30본산 체제에서는 유점사 본말사가 금강산 권역에 있는 사찰들에 해당한다.

연구 대상은 19세기 말에 나온 2권의 금강산 기행 필사본과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유점사본말사법』(1912, 1943), 『조선불교일람표』(1928), 『유점사본말사지』(1942)이다. 2권의 필사본은 각기 1890년과 1894년에 금강산을 다녀온 기행문으로서, 전자는 진사 출신의 양반 사대부의 글이며, 후자는 계룡산 동학사 출신의 승려 글이다. 19세기 관찬지리지에 없는 상태에서 구한말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과, 사대부와 승려의 글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4개의 자료들은 유점사가 직접 조사하여 총독부의 인가를 받았거나 조선불교 중앙 교단에서 통계를 낸 책들로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II. 19세기 말 금강산의 사찰 추이

조선시대 금강산 사찰의 공식적인 추이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시기별로 편찬된 관찬지리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사 시기구분에서 근대에 해당하는 19세기 후반의 현황은 해당 시기에 편찬된 지리지에 없는 관계로 확인할 길이 없다.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되는 것은 1910년대 이후 식민지 정책에 의해 전국의 사찰이 본말사로 재편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살펴볼 19세기 말의 금강산 사찰 현황은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닌, 1890년대 금강산 기행을 다녀온 한 유학자와 한 승려의 기행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개인 기록이기는 하지만 직접 보고 기록한 것으로서, 20세기 초 관광지로 개발되기 직전의 금강산 불교의 풍광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그에 앞서 공

식 통계였던 18세기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금강산 사찰들을 간략히 들여다봄으로써, 사찰현황의 사적(史的) 추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16-17세기 금강산 유람록의 사암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금강산에는 10개의 사(寺)와 108개의 암(庵)이 있었다고 한다.<sup>8)</sup> 즉 118개의 사암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인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7세기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18세기의 『여지도서』에 정리된 금강산의 사암은 대략 30개소 전후이다.<sup>9)</sup> 이처럼 양반 사대부의 유람록과 관찬지리지에 보이는 사암의 개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앞선 연구에서는 당시 사암의 규모와 전통성을 중시하여 규모 있는 사암만을 관찬 사료에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sup>10)</sup>

실제로 『여지도서』에 소개된 사찰 규모를 보면, 유점사의 경우 846칸, 장안사는 300칸, 표훈사는 170칸, 정양사는 50칸으로 비교적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한편 기록상 가장 작은 규모는 보희암으로 3칸이다. 보희암 소개에 표훈사 아래에 있다고 한 것을 보면, 큰 절인 표훈사의 산내말사 정도의 성격을 지닌 암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면, 관찬 사료에 기록된 사암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규모와 전통성을 중시한 것에 더하여, 큰 절의 산내암자로서 분명한 존재감이 있거나 떨어져 있더라도 명확하게 건물을 가지고 승려가 거주하는 경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는 관찬지리지와 유람록의 기록을 종합하여 조선 후기 금강산에 약 160개의 사찰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이 모든 사암에 승려가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8) 이종수, 「16-17세기 유학자의 유람록으로 본 금강산 불교」, 237쪽.

9) 최윤정, 「조선후기 금강산의 불교」, 19~25쪽 참고.

10) 이종수, 「16-17세기 유학자의 유람록으로 본 금강산 불교」, 237쪽.

11) 『(전주대학교 고전국역 총서) 여지도서강원도』, 전주: 디자인하름, 2009 참고.

12) 최윤정, 「조선후기 금강산의 불교」, 29-31쪽 참고.

모두 번듯한 법당 건물이 있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으며, 한시적으로 수행을 위해 거주하며 지어진 사암들이 유람록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조선시대 금강산을 유람했던 수많은 양반 사대부들은 수려한 금강산의 경치 감상은 물론이고, 수행하는 승려들이 있었던 160여 개소에 달하는 사암들을 통해 금강산의 불국토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하였을 것이다.

그럼 사찰 추이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근대 직전의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의 사찰 기록과 1890년대 두 유람록의 사찰 기록을 대조해 보기로 한다. 편의를 위해 금강산 권역의 사찰을 회양군(내금강)과 고성군(외금강)으로 나누고, 사(寺)와 암(庵)의 단순한 구별과 함께 각기 가나다순으로 배열했음을 밝힌다. 사찰이 폐사되었음을 필자가 명확히 밝혔거나, 문맥상 그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사찰들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표 1〉 18~19세기 기록에 보이는 금강산의 사찰명

		회양(내금강)	고성(외금강)
여지도서 (18세기)	寺(9)	내원통사, 장안사, 정양사, 표훈사	몽천사, 발연사, 신계사, 원통사, 유점사
	庵(28)	돈두암, 마하연, 만회암, 묘봉암, 미타암, 백화암, 보덕굴, 보희암, 불지암, 불지암 <sup>13)</sup> , 사근암, 사자암, 상백운암, 송라암, 신립암, 안양암, 영원암, 운지암, 증백운암, 지장암, 청련암	명적암, 반야암, 백련암, (백전암), (성불암), 송림굴, 흥성암
금강록 (1890)	寺(6)	장안사, 정양사, 표훈사	발연사, 신계사, 유점사
	庵(41)	관음암, 도솔암, (돈도암), 마하연, 만회암, (묘길상), (미타암), 백화암, 보덕굴, 보문암, (보현암), 불지암, (비로암), (송라암), 수미암, (수월암), (신립암), (안심암), (안양암), 영원암, 원통암, 장경암, 지장암, (천덕암), (청련암), 해은암	득도암, 명적암, 몽천암, 미타암, 반야암, 백련암, 보광암, 보운암, 불정대암자, 상운암, (안심암), (재미암), 중내원, (화정암), 흥성암

13) 불지암은 한자를 달리하여 佛地庵, 佛知庵 2곳이 기록되어 있다. 둘 모두 마하연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전자는 규모가 11칸이고 후자는 6칸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19세기 자료에 나오는 불지암은 전자인 것으로 보인다.

	寺(6)	장안사, 정양사, 표훈사	발연사, 신계사, 유점사
봉래 일기 (1894)	庵 (25)	관음암, 도솔암, 돈도암, 마하연, 만회암, 묘길상, 백화암, 보덕굴, 보문암, 불지암, 선암, 송라암, 수미암, 안양암, 영원암, 원통암, 장경암, 지장암	명적암, 반야암, 백련암, 보광암, 보운암, 적멸암, 증내원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 사이에 편찬된 전국 지리지로서, 18세기 중엽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금강록』은 유자(儒者)인 희당(希堂) 조병균(趙秉均, 1855~?)이 1890년 5~6월에 금강산을 유람한 기록으로 순 한글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4)</sup> 『봉래일기』는 1894년 당시 계룡산 동학사에 주석했던 청운(淸雲) 이면신(李勉信)의 금강산 유람록으로 4~5월 중에 여행한 기록이다.<sup>15)</sup> 『금강록』과 『봉래일기』는 4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행문으로서 기록에 나오는 사찰명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각기 진사 출신의 유생과 승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교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18세기 중엽 『여지도서』에 기록된 금강산 권역의 사찰은 회양군 25개소, 고성군 12개소로 모두 37개소이다. 이 중 고성군의 성불암과 백전암은 외금강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사찰은 35개소였다. 1890년 『금강록』의 경우는 전체

14) 이 책의 간략한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제: 金剛錄, 이제: 금강록, 전체 58장, 무곽(無廓), 무계(無界), 책크기(cm): 세로 23.3×가로 24.1, 인장(印章): 希堂, 國衡, 豐壤, 趙秉均印 등. 조병균 원저·최강현 역주, 『금강산! 불국인가 선계인가』, 신성출판사, 1999 참고.

15) 표제: 金剛山, 권수제: 蓬萊日記, 전체 34장의 산문 형식으로 된 필사본. 책크기(cm): 세로 23.5×가로 21.9, 실제 여행은 1894년 3월 6일 공주로부터 출발하여 한양을 거쳐 금강산을 유람하고, 양양(낙산사), 오대산(월정사), 영월, 단양, 상주, 문경, 청주 등을 거쳐 5월 29일 계룡산 동학사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당시 금강산 주요 사찰의 전각 배치도를 그려 넣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면신 지음,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옮김, 『잡오년의 금강산 유람 봉래일기』, 올리브그린, 2020 참고.



47개소의 사찰이 확인되지만 그 중 15개 사찰이 폐사된 것으로 보여 지은 이는 대략 32개소를 현존하는 사암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1894년의 『봉래일기』에서는 31개소의 사찰 명칭이 확인된다. 단순한 기록상의 수치로 보면,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대략 130~4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금강산 사찰의 개수는 30여개 정도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후의 다른 관찬지리지의 통계와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규모가 작은 수많은 암자들의 경우 수행자의 여부에 따라 존폐를 거듭해왔을 것이며, 그밖에 화재 등의 재해로 완전히 폐사가 되었을 수도 있기에, 동일한 사암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금강산에는 대략 30여 곳의 사찰들이 유지되며 금강산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18세기와 19세기에 모두 보이는 사찰은 돈도암, 마하연, 만회암, 미타암, 백화암, 보덕굴, 불지암, 송라암, 신림암, 안양암, 영월암, 장안사, 정양사, 지장암, 청련암, 표훈사, 명적암, 몽천암, 반야암, 발연사, 백련암, 신계사, 유점사, 흥성암 등 24개 사찰이다. 이 중 『금강록』에서 빈터만 바라보았다든가 퇴폐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한 사찰이 돈도암, 미타암, 송라암, 신림암, 안양암, 청련암, 몽천암 등 7곳이다. 그럼 대략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암은 17곳 정도이다. 이들은 흔히 금강산 4대 사찰이라고 하는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부속 암자들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대략적인 정보로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표훈사에 부속된 암자였던 신림암과 청련암은 퇴폐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한 7곳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조병균의 『금강록』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면신의 『봉래일기』에는 두 암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실제로 폐사되어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1942년에 발간된 『유점사본

말사지』에 의하면 두 사찰은 비구니가 머무는 사찰로서,<sup>16)</sup> 19세기 말에 증창한 기록이 있다.<sup>17)</sup> 19세기의 기록들이 한정된 시간에 유람한 곳을 중심으로 기록한 정보인 만큼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과의 대조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표 1>에서 18세기에는 이름이 보이거나 19세기 말엔 보이지 않는 사찰은 묘봉암, 보희암, 불지암(佛知庵), 사근암, 사자암, (상·중)백운암, 운지암, 백전암, 성불암, 송림굴, 원통사 등 12곳이다. 사암의 존폐와 그곳이 유지되고 있음을 따지는 근거로는 승려의 거주 여부와 수행 등을 위한 건물(법당)의 존재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병균은 내금강의 장경봉, 관음봉, 지장봉 등을 둘러보고 장안사 해은암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양암, 수월암, 미타암의 빈터만을 바라봄을 탄식했다.<sup>18)</sup> 안양암과 미타암은 18세기 기록에도 보이는 암자들이다. 『금강록』의 내용만 보면, 이들 암자들은 수행공간 및 거주 승려가 모두 없는 그야말로 폐사지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만회암은 “머물러 사는 스님은 없고, 평양 선비가 기도를 하고, 회양 선비가 산신당에 기도하는 모양이 옷을 만하다.”고 했고, 몽천암은 “암자가 퇴폐하여 마침 주장승이 없고, 다만 한 객승이 나와 맞이하므로 곧 법당에 올랐다”고 했다. 이 경우는 두 암자에 거주하는 승려가 없지만 누추하나마 부속된 건물은 있었던 듯하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모든 암자에 승려들이 거주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때그때마다 승려나 선비들의 수행처나 기도처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 같다.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 금강산을 많이 찾았고, 그때마다 곳곳에 있던 암자들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했을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양반 사대부들의 유람을 위

16)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36~40쪽 참고.

17) 『유점사본말사지』, 유점사, 1942, 419쪽, 596쪽.

18) 조병균 원저·최강현 역주, 『금강산! 불국인가 선계인가』, 67쪽.

한 숙소로 이용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사암이 지니는 역할을 위와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승려들의 역할도 『금강록』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조병균은 사찰들에서 많은 승려들과 교유했던 내용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그의 유람을 위해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종이 남여(藍輿)꾼들을 거느리고 기다린 까닭으로 남여는 돌려 보내고, 지로승(指路僧)을 따라 백화암에 들어가 잠깐 쉬고, 장안사의 여러 중들은 내려오게 하여 돌려보내니, 여러 중들이 남여꾼의 폐를 없이하려 한 것을 매우 치사하였다.

법당 역사(役事)로 분묘하기에 제반 거행은 제폐하고, 석각(石刻)하는 중만 만폭동으로 보내어 제명(題名)하고 지로승 따라 정양사에 이르니.....<sup>19)</sup>

위 내용들은 금강산 사암에 거주하고 있는 남여승, 지로승, 석각승의 존재를 보여준다. 길을 안내하고 가마를 메는 일은 조선시대 수많은 사대부들이 금강산을 찾았을 때 승려들이 맡았던 주요 역할이었다. 그 역할이 19세기 말, 흔히 개화기라고 부르는 시기에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위 등에 글자를 새겼던 역할도 승려들이 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금강록』에는 30대 중반의 조병균이 절에 도착했을 때, 노승을 비롯한 많은 승려들이 직접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있기도 하다. 반면, 승려였던 이면신의 기록을 보면 내금강 망군대(望軍臺)를 돌아보며 찾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지 못하면서, “초행이고 길잡이가 없는 까닭으로 매우 아쉬웠다.”고 탄식하고 있다.<sup>20)</sup> 개화기임에도 불구하고

19) 조병균 원저·최강현 역주, 『금강산! 불국인가 선계인가』.

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는 사대부와 승려의 처우가 달랐던 정황을 느낄 수 있다.

한편, 19세기의 두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비구니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다. 조병균은 유점사 흥성암과 득도암의 승방에서 그에게 합장 배례하는 수십 인의 여승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금강산에서 심심치 않게 비구니들이 보이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면신은 배령(拜嶺)에 안양암과 반야각이 있는데 모두 비구니 방이라고 했고, 관음암과 보문암도 비구니가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금강산에는 비구니의 전용 사찰이나 거주 사찰이 있었고, 『유점사본말사지』를 보면 19세기 각종 불사에서 비구니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장안사의 관음암(중관음암), 보문암(하관음암), 표훈사의 청련암, 신림암, 신계사의 미타암, 유점사의 흥성암 등이 금강산 비구니 사찰이었다.<sup>21)</sup> 비구니들은 수행뿐만 아니라, 시주를 하거나 사찰 중창의 화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조선 후기 금강산 4대 사찰에서는 모두 비구니들의 수행을 위한 소속 암자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Ⅲ. 일제강점기 금강산의 사찰 현황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는 사찰령의 통제 아래 전국의 사찰이 30본산으로 재편된다. 총독부가 사찰령을 제정할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최잔한 조선불교일지라도 사찰의 재산이 적지 않으니 일본 각종에 분속케 해서

20) 이면신 지음,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옮김, 『갑오년의 금강산 유람 봉래일기』, 68쪽.  
21)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참고.

관리하자는 의견과 이럴 경우 조선 승려들의 불평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특별히 법령을 제정하여 사찰을 보호 관리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sup>22)</sup> 결국 사찰령은 조선불교의 보호와 지원의 차원보다는 사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우선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총독부는 사찰령의 공포와 함께 전국 사찰을 30본산과 말사들로 재편하여 대대로 이어져 온 조선 사찰의 전통을 한낱 행정조직으로 변경시켰다. 이런 점은 본산 주지가 전통적 산증공의 제도가 아닌 조선 총독의 인가에 의해 임명되고, 말사 주지도 지방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시스템이 잘 증명해 준다.

전국 사찰의 대표격인 30본산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대법산-중법산 제도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대표사찰이 선정되었을 것이라 추측만 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본산의 지정이 조선 불교도의 공개적인 합의나 타당한 근거 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독부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최초 본산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일부 큰 사찰들은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인가신청을 넣었고, 실제로 1924년에 화엄사가 본산으로 승격되어 해방 전까지 31본산 체제가 유지되었다.<sup>24)</sup>

이 글에서 다루는 금강산의 사찰들은 유점사를 본산으로 하여 소속 말사들로 재편되었다. 각 본산들은 곧바로 사법(寺法)을 제정하여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유점사는 1912년에 인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유점사본말사법』에 소속 말사 현황이 기입되어 있다. 비록 일제 식민 정부에 인가를 받는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지만, 조선시대 관찬지리지 이

22) 「總督政治의 大佛敎策」,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임정편Ⅳ) 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74, 123~124쪽.

23) 한동민, 「사찰령 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 출판사, 2006, 110쪽.

24)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중앙기구의 조직구성과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8쪽.

후 당국의 공식적인 사찰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본산 유점사의 말사가 금강산 권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1912년의 본말 사범에는 앞서 금강산 권역으로 구분했던 회양군과 고성군 외에도 인근의 통천군, 철원군, 김화군, 금성군, 이천군, 안협군, 평강군, 춘천군, 화천군에 있는 총 60개 사암이 유점사의 말사로 편입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금강산 권역으로 설정한 만큼 회양군과 고성군에 있는 해당 사암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중간쯤에 해당하는 1928년의 통계와 말기인 1940년대 통계를 대조함으로써 이 시기 금강산 권역 사찰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일제강점기 금강산 권역의 사찰 현황

구분	사찰	주소(1942)	① 1912	② 1928	③ 1942	④ 1943
회양군	도솔암	내금강면 장연리 27번지	○	○	○	○
	돈도암	내금강면 정양리13번지	○	×	○	○
	마하연	내금강면 정양리14번지	○	○	○	○
	만회암	내금강면 정양리15번지	○	○	○	○
	백회암	내금강면 정양리13번지	○	○	○	○
	보덕암(굴)	내금강면 정양리12번지	○	○	○	○
	보현암		○	×	×	×
	불지암	내금강면 정양리16번지	○	○	○	○
	선암		○	○	×	○
	수미암	내금강면 정양리13번지	○	○	○	○
	신림암	내금강면 정양리 317번지	○	○	○	○
	안양암	내금강면 장연리 28번지	○	○	○	○
	영원암	내금강면 장연리 20번지	○	○	○	○
	원통암	내금강면 정양리 13번지	○	○	○	○
	유도암	내금강면	×	○	×	×
	장경암	내금강면 장연리 26번지 1	○	○	○	○
	장안사	내금강면 장연리 281번지	○	○	○	○
	정양사	내금강면 정양리12번지 2	○	○	○	○
중관음암	내금강면 장연리 26번지 1	○	○	○	○	
지장암	내금강면 장연리 21번지	○	○	○	○	

	청련암	내금강면 정양리12번지	○	○	○	○
	표훈사	내금강면 정양리321번지	○	○	○	○
	하관음암	내금강면 장연리 277번지	○	○	○	○
고성군	유점사	서면 백천교리 125번지	○	○	○	○
	대승암	신북면 창대리	×	×	○	×
	득도암		○	○	○	×
	명적암		○	×	×	×
	문수암	신북면 용계리 142번지	○	○	○	○
	미륵암	신북면 용계리 21번지	×	○	○	○
	반야암		○	○	○	○
	발연암(사)	신북면 용계리 677번지	○	○	○	○
	백련암		○	×	×	×
	법기암	신북면 창대리 144번지	○	○	○	○
	보광암	신북면 창대리 119번지	○	○	○	○
	보운암	신북면 창대리 86번지	○	○	○	○
	삼성암	신북면 창대리	×	○	○	○
	상운암	신북면 창대리 144번지	○	○	○	○
	송림굴		○	×	○	×
	신계사	신북면 창대리 107번지	○	○	○	○
	원통암		○	○	×	○
	중내원(암)		○	○	○	○
	칠보대		○	×	○	×
	흥성암		○	○	○	○
사찰 수 합계			39	36	37	35

※ 각 연도 자료:

- ① 『유점사본말사법』, 유점사, 1912.
- ② 『조선불교일람표』,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28.
- ③ 『금강대본산 유점사본말사지』, 유점사, 1942.
- ④ 『조선불교조계종 대본사 유점사본말사법』, 유점사, 1943.

우선 각 자료의 성격부터 보자면, ①과 ④는 총독부에 인가를 받기 위해 유점사가 제작한 「사법」으로서, 여기에 실린 소속 말사 현황은 공신력을 지닌 통계라고 볼 수 있다. ②는 1928년에 교단 중앙 기구였던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조선불교의 각종 현황 자료를 정리하며 발간한 자료이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31본산 주지 및 평의원 대

표 승려들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였고,<sup>25)</sup> ②에서 발표하고 있는 말사 현황도 유점사의 보고에 의한 통계일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은 본산 유점사의 사지(寺誌)뿐만 아니라 24개 말사의 사지를 각 장으로 수록하여 엮은 종합 사지이다.<sup>26)</sup> 이 책은 유점사 주지의 요청을 받은 안진호(安震湖)가 유점사 본말사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한 것을 1942년에 권상로(權相老)가 재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sup>27)</sup> 유점사만이 아니라 각 말사의 구체적인 역사자료들이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의 사찰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 금강산 권역에 있는 사찰들은 모두 유점사의 말사들로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39개 정도의 사암들이 있었다. 앞장에서 19세기 말의 상황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 추가된 사찰명이 몇 군데 확인된다. 회양군의 경우, 19세기 말에 보였던 사찰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보현암의 경우, 조병군의 『금강록』에는 퇴폐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었는데, 1912년의 사법에는 기록되었다. 하지만 ②번 이후의 자료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이후 완전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군의 경우, 19세기 말과 비교하여 새로 등장한 사암은 대승암, 문수암, 미륵암, 법기암, 삼성암, 송림굴, 원통암, 칠보대 등 8곳이다. 본산

25) 김성연,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참고.

26) 수록된 말사 사지 중 「상원사지」는 부록으로 「흥국사지」와 「보광사지」를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유점사지까지 포함하면, 총 27개의 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27) 한동민, 「일제강점기 사지편찬과 그 의의-안진호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32, 한국불교연구원, 2010, 250~251쪽. 『유점사본말사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비록 「청평사지」를 중심으로 연구된 논문이기는 하나 다음이 참고 된다. 홍성익, 「『유점사본말사지』에 대한 연구-「청평사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인 유점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회양군보다 유동성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약 32개 정도의 사암들은 해방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했던 ①과 ④를 비교해 보자. 31년의 차이를 두고 1943년에 이름이 사라진 사찰은 보현암, 득도암, 명적암, 백련암, 송림굴, 칠보대 등이다. 회양군에 있는 보현암을 제외한 5개 사찰은 모두 고성군에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유점사의 산내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정확한 사정은 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암자들은 승려의 유무나 사세유지의 형편 등에 따라 폐사되었을 것이다. 혹은 산내말사로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산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암자로서 통계 자료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sup>28)</sup> 반대로 1943년에 새로 추가된 사찰은 미륵암과 삼성암이다. 이 두 암자는 ②번 자료부터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20년대 이후에는 유점사 인근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다.

②번 자료에서는 돈도암과 유도암이 눈에 띈다. 자료에서는 돈도암이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다. 돈도암은 19세기 말 조병균의 『금강록』에서 ‘퇴폐하여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18세기의 기록들에서부터 꾸준히 보였던 암자이다.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②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사찰의 재산 목록을 기록한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sup>29)</sup> 유점사 편에서 돈도암 부분을 보면, 관음보살, 나

28) 『유점사본말사법』을 보면 산내말사의 경우, 종래의 관례에 따라 전임 주지를 두지 않고 본사의 주지가 겸직한다고 되어 있다.

29)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사찰명과 주소, 품목, 수량 등을 필사(筆寫)하여 선장(線裝) 형태로 만든 자료로서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26개 본산의 재산 목록 총 26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1920년대 후반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작성한 <사찰재산대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서관 정보에는 1940년 간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자료에 간기 정보가 없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

반존자, 후불탱, 신장탱, 독성탱, 산신탱 및 불기(佛器)와 향로 등 약간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돈도암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며, 조병균의 기록을 감안하면 조그마한 암자 정도의 규모가 유지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승려 김구하도 1932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간행한 『금강산관상록(金剛山觀賞錄)』에서 신라 마의태자가 입산했을 때 돈도 부인이 창건했으며 여전히 그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기록한 바 있다.<sup>30)</sup> 그리고 유도암은 다른 자료에는 없고 ②에서만 보이고 있는 암자이다. 유도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③은 사지로서 다른 자료에 비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사찰 현황(통계)은 다른 자료와 비슷하다. 다만 여러 암자들의 존폐현황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 폐허제암(廢墟諸庵)

원통암, 득도암은 사법에 기록하고 백련암, 도솔암은 기문(記文)을 갖추고 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절의 암자에 동쪽으로 종련암, 두운암, 하견성, 상견성, 태조암, 도솔암, 은

---

렵다. 기록된 내용도 확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본 연구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당시 사찰의 재산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찰 현황을 살펴 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원본 이미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1815\\_0021](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1815_0021)). <사찰재산대장>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김성순,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의 작성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대각사상』 35, 대각사상연구원, 2021을 참고.

- 30) 김구하, 『금강산관상록(金剛山觀賞錄)』, 영축총림 통도사, 1998, 91쪽. 이 책은 김구하가 1932년 4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130여 일에 걸쳐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이다. 일제강점기 승려의 시각에서 바라 본 금강산과 사찰에 대한 감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에는 31개소의 금강산 사찰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이경순, 앞의 논문, 2022, 89쪽을 참고.

신굴, 울암, 성불암, 불정암, 불정대가 있으나 모두 폐하고, 성문동 아래에 송림굴, 송림신암, 원통암, 안심암, 삼성암이 있으나, 안심과 삼성이 또한 폐했다 함은 백헌 이경석의 풍악록에 나타나고, 명적암(서), 홍성암(동), 두운암(북), 성불암(두운의 동북), 불정대(성불암과 이어 있음), 상견성, 하견성(불정대 서쪽 두운암 북쪽), 축수굴(견성 서쪽), 영대암(축수굴 서남), 보현암, 진견성암(구연동 중), 향로암(구연동남), 내원암(향로암 서북), 남초암(미륵봉 남), 양진굴(만경대 서) 이상은 울곡 이이의 풍악행에 나타나나 지금 존재하는 것은 십중 1, 2에 불과하다.<sup>31)</sup>

이를 보면, 남아 있는 사찰이 십중 1, 2에 불과하다고 했으니 완전 사라졌다고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했던 보현암, 명적암 등은 이미 퇴폐하여 유지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19세기 말 기록에서 이름만 보였던 불정대암자나 안심암 등도 완전 폐사되었던 듯하다. 1940년대 기록들은 해방 전 마지막 자료이기도 하지만, 본산인 유점사가 각 말사의 주소까지 상세히 기입하면서 주체적으로 발간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리하자면, 일제강점기 금강산 권역의 사찰들은 대략 35개소 전후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19세기 말과 같이 금강산 4대 사찰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암자들은 경제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1920년대 초반 이광수가 남긴 금강산 기행문을 보면 당시 사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띈다.<sup>32)</sup>

31) 『유점사본말사지』, 16~17쪽.

32) 이광수,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1924), 『금강기행문선』(윤석달, 이남호 편저), 작가정신, 1999 참고.

〈표 3〉 이광수가 바라본 금강산의 암자들

지장암	현재 여러 스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밖에 특별한 감상이 없다.
영월암	이 암자에는 본디 한두 사람 밖에 없지만 지금은 특별기도회가 열려 1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
도솔암	암자는 도솔봉의 동쪽에 동향으로 앉아, 하늘에 닿은 망군대를 좌편으로 치어다보는 3칸이나 될 너와집이다. 집은 쓰러져 가고 방 뒷벽에 모셨던 불화도 누가 찢어버렸는지 부처님의 한 편 발과 옷자락만 남아 있다. 찾는 사람조차 없으며, 뒷마루 밑까지 잡초가 무성하였다.
백화암	이 암자는 꽤 웅장한 집이었다는데 예닐곱 해 전에 불이 타버렸다 한다. 거치른 풀밭엔 서산대사 기적비와 누 것인지조차 모르는 네댓 개 사리탑이 남아 있을 뿐이다. 폐허가 된 암자 서편에 지공, 무학, 나옹 등 이태조 등극 초에 공이 있던 이와 서산, 사명 등 임란에 공이 있던 스님들의 탕을 모신 충영사가 있다.
정양사	혈성루와 육각당 사이에 고탑과 석등이 있다. ... 육각당은 미려하기로 금강산에서 손꼽을 만한 건물로, 돌로 만든 약사여래를 모셨고 후면에 반야전이 있으니 『대반야경』을 수장한 곳이다. 작은 절이어서 그런가, 네댓 사람의 구경꾼 외에는 인적이 없다.
보덕굴	세 칸 통이나 될 만한 기와집인데, 인적은 없으나 마당에 담배대가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기도하러 온 사람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 문을 열어보니 어둠침침한 조그마한 방의 정면에 한 폭의 불화가 걸린 것밖에 세간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선암	집터의 마당이 온통 바위요, 마당 끝에는 천연의 단이 있다.
수미암	퇴락한 너와집 암자 한 채가 있으니, 금강산에서 제일 깊고도 높은 수미암이다. 본래는 좋은 노송나무로 아주 청초하게 지었고, 담도 어여쁘게 둘러건만 스무 해쯤 전에 폐암자가 되어 지금 보니 말도 못하게 퇴락하였다.
중내원	중내원은 작은 암자라 산승 한 사람이 있을 뿐 양식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유점사에서 양식과 된장을 가지고 떠났다. .... 이슬비 같은 안개 가운데 쓰러져가는 일각문이 있고, 그 안에 지붕은 너와로 되어 있고, 집은 기울어진 작은 암자가 있는데, 바로 중내원이다.

1920년대 초반 금강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금강산 암자들의 형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다. 큰 절을 제외하고 이광수가 돌아본 대다수 사찰의 풍광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출하거나 퇴폐한 정경이다. 이처럼 20세기에 들어서도 소규모 암자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규모

는 크게 일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점사를 중심으로 한 본말 관계의 형성은 비록 식민지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나름대로 본말사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 유점사 본말사는 매년 회의를 개최했고, 현안 문제를 의논하여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행정절차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대화가 들이닥친 금강산에 전통 사찰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큰 절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근대 금강산 권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금강산 권역에는 30~40개의 사암이 유지되었다. 이들은 금강산 4대 사찰로 알려진 장안사·표훈사·유점사·신계사를 중심으로 큰 절과 부속 암자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유점사를 본산으로 한 소속 말사들로 재편되었다. 이들 중 유점사가 본산이 된 연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세기의 『여지도서』에 유점사가 846칸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 월등히 컸다고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사찰의 규모가 본산 결정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라도의 선암사와 화엄사가 본산 선정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던 것에 비해, 금강산 사찰의 본말사 형성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루어졌다. 오래 전부터 '금강산 불교'라는 특수한 사상과 신앙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해왔기에, 규모가 가장 큰 유점사가 대표가 되는데 큰 이견은 없었을 것이다.

금강산의 사찰은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쪽 내륙 지역이 내금강, 동쪽 해안 인접 지역이 외금강이다. 근대 행정 구역상으로는 각기 회양군과 고성군이며, 여러 여행 기록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금강은 철원과 김화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외금강 쪽에서 들어가더라도, 모두 험준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만큼 금강산 유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부터 금강산 유람에서 사찰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금강 지역의 교통과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1920~30년대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는 금강산 여행에서 사찰과 승려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금강 지역은 외금강보다는 수행처나 기도처로서의 인식이 더 강하다. 조선시대 이래 여러 유람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더라도 승려들이 선(禪) 수행을 하거나 일반 신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내금강 지역의 사찰들이 더 많이 언급된다. 속세와는 단절된 심산유곡의 이미지와 불교 성지라는 의미가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근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앞 장의 <표 2>에서 내금강 지역의 사찰 현황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도 그러한 불교 수행 전통이 잘 계승되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구하는 『금강산관상록』에서 장안사의 수좌들이 여전히 옛 선원(禪院) 제도에 의거해 좌선을 하고 있다고 기록했다.<sup>33)</sup> 그리고 당시 장안사 주지가 “만천교(萬川橋) 바깥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지만, 만천교 안에서는 선규(禪規)에 따라 행합니다.”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1932년 당시 결혼을 했거나 여관을 경영하는 승려를 엄격히 구별하여 사원을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관광지 개발로 금강산이 급속한 변화를 맞았지만, 오랜 수행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33) 김구하, 『금강산관상록』, 40~41쪽.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수행공간으로서의 인식은 마하연사의 선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내로라하는 선승치고 마하연의 선원을 거치지 않은 승려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마하연은 선 수행의 산실로서 큰 영향을 끼친 사찰이다.<sup>34)</sup> 특히 1932년에 주지 이화응(李華應)의 주도로 절이 크게 증창되어 전국 제일선원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김구하도 마하연에 지어진 59칸짜리 전각을 보면서 '아마 사찰 한 동의 건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것 같다'고 감탄했다.<sup>35)</sup> 한 회고에 의하면, 200여 명이 앉는 큰 방에 수많은 승려들이 공부를 하여, 해제 후 다른 곳에서 만나면 서로 얼굴을 몰랐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니,<sup>36)</sup> 그 규모와 함께 수행자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마하연은 이후 전국에서 선 수행을 하는 승려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행도량으로 인식되었다.<sup>37)</sup>

마하연 선원이 증창되기 앞서 장안사도 1926년부터 1932년 사이에 대웅전을 보존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sup>38)</sup> 이 시기 사원의 증창을 금강산 관광지 개발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찰이 새로 건립되고 증창되는 이유가 단지 그것에만 국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 시설인 사찰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사찰의 변화나 확산은 곧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금강산 개발은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34) 박원자, 『청정 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38~39쪽.

35) 김구하, 『금강산관상록』, 1998, 73~75쪽.

36) 박원자, 『청정 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40쪽.

37) 이경순, 「1932년 통도사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금강산관상록』을 중심으로」, 94쪽.

38) 서효원, 「장안사 대웅전 보존 수리공사와 1930년대 금강산 개발」, 『건축역사연구』 제29권 3호, 2020 참고.

다.<sup>39)</sup> 이후 원산-금강산 간 도로 건설, 원산-장전항 간 여객선 운행, 장전-금강산 간 도로 건설 등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이 시작되었다. 1915년엔 원산-온정리 간 도로가 개통되었고, 이로 인해 아침에 경성을 출발해 저녁에 말휘리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19년엔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전기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해 1924년 철원-김화 구간, 1931년 철원-내금강역까지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러자 경성에서 출발해 7-8시간이면 내금강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9년에는 동해북부선, 1932년에는 외금강역과 고성까지의 전 노선이 개통되었다. 철도의 개통과 함께 자동차 도로도 정비되었고, 금강산 탐승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관광탐승단 모집이 줄을 이었다. 금강산으로 가는 교통편 외에도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도 건설되면서 1930년대 이후 금강산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금강산 관광이 보다 대중화되자 금강산을 홍보하는 안내서와 리플릿 등도 다수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안내서에는 금강산 사진은 물론이고, 교통 안내, 숙박시설 안내, 각종 경비, 할인 행사 안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용이 가득하다. 주목되는 점은 조선풍의 숙박시설로 장안사, 표훈사, 백화암, 유점사, 신계사 등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사찰에는 일본어를 잘 하는 승려들이 상주하며 금강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sup>40)</sup> 사찰이 숙소로, 승려가 안내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기록에서 보았던 남여승, 지로승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사찰이나 승려가 보다 주체적으로 근대 관광산업 전선에 뛰어들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했다고 이

39)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이경순, 『금강산 가는 길』, 대한민국의사박물관, 2020; 『북강원도사 1. 금강산권역II』, 강원도 문화유산과(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40)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242~244쪽.



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사찰 주변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생겨나 그것을 운영하는 승려도 나타났고, 인근에 우체국이나 주재소와 같은 편의 시설도 등장했다. 승려의 종교성 문제는 되짚어 볼 문제이지만, 사찰은 근대 관광의 풍파 속에서, 특히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전승자로서 하나의 큰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랜 수행전통 및 승가 규율 등을 유지·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보여주는 근대성의 단면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사찰들은 조선시대에도 그랬듯, 근대 금강산 개발에 의한 관광의 붐 속에서도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금강산은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개발되어 일본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을 끌어들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제의 간섭과 통치 속에서 민족적 자립과 자각을 요구하는 민족성 고취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sup>41)</sup> 최남선은 금강산이 조선 최고의 산으로서 조선심(朝鮮心)과 조선 정신의 표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제 당국에 의해 식민지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 것이었기에, 민족정신의 표상으로서 맞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친일로 돌아섰던 인물임을 생각하면, 금강산 개발에 동조하며 금강산을 띄우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무엇이었던 금강산을 조선 정신의 표상으로 이해한 것은 분명하며, 그것은 금강산에 대한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이미지가 반영된 인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금강산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수사는 금강산이 단순히 민족의 영광을 상기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 영광을 상실했음을 상기시키는 장이기도 하다<sup>42)</sup> 는 지적을 꼭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민족적 자각’이라는

41) 박은정, 「20세기 초 금강산 표상 연구-최남선의 『풍악기유』와 『금강예찬』을 중심으로-」, 『동방학』 4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2 참고.

42) 테사 모리스 스텝키 지음, 정지영 옮김, 『금강산』,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 395쪽.

요구가 금강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제국주의의 성공을 홍보하려는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산에 대한 민족 정체성의 주장은 단순히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삼국시대부터 금강산이 지녀온 불교적 전통과 역사성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강산의 사찰은 역사성, 전통성, 근대성 및 민족 정체성을 표상한다. 여기에 미래성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해방 이후 이념 분쟁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섰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표훈사와 정양사, 보덕암, 불지암 등 몇몇 사찰만 살아남고 대부분 파괴되었다.<sup>43)</sup> 금강산 4대 사찰 중에서는 표훈사만 남고 모두 폐사된 것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후세에 남겨줄 유산은 기억만이 남았다. 그래도 남아있는 유산과 금강산의 훌륭한 자연미는 옛 불교전통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사라진 금강산 사찰의 복원 불사는 미래 금강산의 역사를 다시 세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2004년 남과 북의 불교계는 공동으로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하였다.

금강산 사찰은 남과 북이 분단된 오늘날 통일의 물고름 틀 열쇠이다. 민족의 역사성, 전통성,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동 유산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금강산을 주산(主山)으로 삼은 본산은 유점사와 건봉사였다. 이 글의 주제인 금강산 권역엔 유점사와 그 말사들이 있었고, 그 남쪽으로 건봉사가 위치해 있다. 공교롭게도 근대 관광지였던 금강산 권역과 유점사는 북한에, 건봉사는 남한에 있다. 오늘날 과거 본산의 위용은 이미 사라졌다. 유점사는 폐사가 되었고, 건봉사는 다시 복원불사가 이루어진지 20여년 남짓, 현재는 신흥사의 말사이다. 근대 유점사와 건봉사는 금강산을 주산으로 삼고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지만, 오늘날은 남과

43) 『북강원도사 1. 금강산권역I』, 강원도 문화유산과(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25쪽.

북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교와 금강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 역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사찰은 종교 문화적 공간이다. 남과 북의 정치적 대결과는 별도로 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 금강산의 사찰이 지니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 V. 맺음말

지금까지 19세기 말부터 해방 전까지 금강산 권역의 사찰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찰 현황의 사적(史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18세기 『여지도서』에서 보이는 금강산의 사찰 현황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금강산에는 대략 30여 곳의 사암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운영 능력이 없는 암자들의 경우는 폐사되기도 했으며, 수행이나 기도를 위해 새로 암자가 세워지거나 중수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또한 비슷한 수준에서 사찰 수가 유지되었다. 다만 유점사 본말사로 재편된 가운데, 본산인 유점사가 있던 고성군 지역(외금강)에 말사의 존폐 현황이 두드러졌다. 그에 따라 19세기 말보다는 약간 많은 35~39개 사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식민지 당국에 의해 금강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찰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사찰 주변으로는 편의 시설 및 유락 시설 등이 들어섰고, 승려들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심지어 관광 안내 책자에 조선식 숙박시설로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찰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그에 따라 사찰을 찾는 관

광객도 늘어나면서 금강산 불교도 활기를 띌 수 있었다.

근대 관광지로 개발된 금강산은 분명 식민지 개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대배경으로 인해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을 지닌 금강산이 민족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성지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이는 전적으로 금강산 불교의 역사와 수행전통에서 기인한 정체성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식민지 개발의 현장 속에서도 승려들은 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선규에 의해 사원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도 엄격한 수행전통을 고수했던 한국불교의 정체(正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금강산의 많은 사찰들이 폐사된 상태이다. 금강산 권역이 북한 지역에 포함되면서 종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금강산 불교만의 전통적인 신앙과 수행 풍토도 단절되었다.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되어 있지만, 지난 2004년 신계사 대웅전이 복원되었던 것처럼 불교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해의 길을 열 수도 있다. 금강산의 '불교'와 '사찰'은 남북이 공동으로 지닌 역사 기억이자 종교 문화이다. 따라서 단순한 역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남북 교류의 가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의 사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11.07. 투고 / 2022.12.01. 심사완료 / 2022.12.07. 게재확정)

[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Buddhist Temples in the Modern  
Mt. Geumgang Area and Their Meaning of Buddhist History**

Kim Seong-Yeon

This article summarizes the information based on travel records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buddhist temples in the modern Geumgang Mountain area. According to the official geography bo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 can see that there were about 30 buddhist temples.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were more than 100 temples in the travel records written by the aristocrats. This difference is because the number of temples was recogn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publication, the government data recorded temples with a large size and tradition, and the travel records of the aristocrats recorded all small hermitages.

In this article, the current status of temples in the modern Geumgang Mountain area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colonial period.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examined through two travel record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about 30 temples. In addition, the travel records described the images of temples and monks, which helped to examine the changes in Buddhism in the Mt. Geumgang area. Yujeomsa Temple, which was the headquarters of temples in the Mt. Geumgang a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published various data

to report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we can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he temples through it. These data indicate that about 35 to 39 temples were located in the Mt. Geumgang area.

The historical and traditional temples of Mt. Geumgang became a symbol of modernity as they were developed as a tourist destin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On the other hand, Mt. Geumgang was recognized as a place to represent the independence and identity of the nation in the intervention and rule of Japan. Today,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Korea, the temples of Mt. Geumgang can serve as the key to reunification. Singyesa Temple in Mt. Geumgang has already been restored through cooperation of both sides.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are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Mt. Geumgang. Therefore, the temples of Mt. Geumgang have Buddhist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lead to future-oriented cooperation for reunification of both sides.

□ Keyword

Travel Records of Mt. Geumgang, Travel Records of Mt. Bongnae, Buddhist Temple Law, Yujeomsa Temple, Buddhist Head-Branch Temple Records

[참고문헌]

- 『(전주대학교 고전국역 총서) 여지도서 강원도』, 전주: 디자인흐름, 2009.
- 조병균 원저·최강현 역주, 『금강산! 불국인가 선계인가』, 신성출판사, 1999.
- 이면신 지음,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옮김, 『(갑오년의 금강산 유람) 봉래일기』, 올리브그린, 2020.
- 『유점사본말사법』, 유점사, 1912, 1943.
- 『조선불교일람표』, 조선불교중앙교무원, 1928.
- 『유점사본말사지』, 유점사, 1942.
- 「總督政治の大佛敎策」,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임정편 IV) 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74.
- 『북강원도사 1. 금강산권역 I·II』, 강원도 문화유산과(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0.
- 고영섭, 「금강산의 불교신앙과 수행전통」, 『보조사상』 34, 보조사상연구원, 2010.
- 김구하, 『금강산관상록』, 영축총림 통도사, 1998.
- 김성순, 「일제강점기 사찰재산대장(寺刹財産臺帳)의 작성 배경과 그 역사적 의미」, 『대각사상』 35, 대각사상연구원, 2021.
-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성연,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 김탁, 「금강산의 유래와 그 종교적 의미」, 『동양고전연구』 1, 동양고전학회, 1993.
- 박원자, 『청정 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 박은정, 「20세기 초 금강산 표상 연구-최남선의 「풍악기유」와 『금강예찬』을 중심으로-」, 『동방학』 4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2.

- 박진영, 「15-17세기 금강산유람기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 서효원, 「장안사 대응전 보존 수리공사와 1930년대 금강산 개발」, 『건축역사연구』 제29권 3호, 2020.
- 이경순, 「1932년 통도사 김구하의 금강산 여행-『금강산관상록』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37, 대각사상연구원, 2022.
- 이경순, 『금강산 가는 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 이광수,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1924), 『금강기행문선』(윤석달, 이남호 편저), 작가정신, 1999.
- 이상균, 「조선시대 관동유람의 유형 배경」, 『인문과학연구』 3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이종수, 「16-17세기 유학자의 유람록으로 본 금강산 불교」, 『남명학연구』 51, 경남문화연구원, 2016.
- 최윤정, 「조선후기 금강산의 불교」,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유점사본말사지』에 기재된 비구니 명단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70, 불교학연구회, 2022.
- 탁효정,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사회적 기능」, 『청계사학』 19, 청계사학회, 2004.
- 테사 모리스 스텔스 지음, 정지영 옮김, 「금강산」,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
- 한동민, 「사찰령 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6.
- 한동민, 「일제강점기 사지편찬과 그 의의-안진호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32, 한국불교연구원, 2010.
- 홍성익, 「『유점사본말사지』에 대한 연구-「청평사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